

이낙연 “당 쇄신” · 김부겸 “지역주의 극복” · 박주민 “젊음”

당권주자 3인3색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3인방은 26일 강원도를 찾아 서로 자신이 당대표로 적임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도 순회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당 쇄신’에, 김부겸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에, 박주민 후보는 ‘젊음’에 각각 방점을 찍는 등 3인3색으로 열변을 토했다. 이들은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놓고 일전을 벌인다.

첫 주자로 연단에 오른 박 후보는 “민주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격언을 인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기회를 내게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198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거론한 뒤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열고 그것을 통해 확인된 국민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을 믿고 두려움 없는 개혁에 나서서”라며 “이 과정을 통해 민주당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바라는 모든 세력

박 “새 시대 전환 등지로...함께 ‘시대교체’”

李 “신뢰받는 정당으로...불꽃처럼 일할 것”

金 “지역주의 맞선 盧...국민 통합 완성”

의 등지로 만드는 것”을 민주당이 갈 길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소통하는 정당을 만드는 일에 젊음이 약점이 되는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해답을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데 꼭 연륜만이 정당인가.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는데 과거 경험만이 토대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대를 교체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다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시대를 교체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더 두텁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쇄신하겠다”며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는 책임정당으로 키우겠다. 일을 하면 성과를 내는 유능한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노인, 여성, 청년, 그리고 저소득층 등 약자의 이름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감수성 높은 정당으로 성숙시키겠다”며 “시대의 변화를

마리 알고 준비하는 미래정당으로 변모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단 성추문과 여권 인사들의 설화(舌禍)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어렵고 민주당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나섰다”며 “모든 것을 불태워 불꽃처럼 일하겠다”면서 거듭 위기 극복의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연설 시작에 앞서 “집중호우로 또다시 깊은 시름에 빠진 강원도민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어려움 많은데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최문순 강원지사, 허영도당위원장 등 강원도 내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지역감정에 맞서 온몸을 던진 노무현을 기억한다. 나는 그것을 흉내라도 내겠다”고 대구로 갔다. 그 지역주의가 정말 힘들었으나 울부짖고 몸부림쳐서 나는 잠시나마 그 벽을 넘어왔다”며 “우리들의 꿈,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되게 하는 존경하는 민주당을 완성



26일 오후 강원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시·도당 순회합동연설회에 앞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모습.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당대회 후 있을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을 열거한 뒤 “이 중대한, 앞으로 4차례의 큰 정치적 과제(선거)를 감당할 당대표, 임기 2년을 확실히 채우고 후보자와 우리들의 여러 당의 가치를 지킬 당당한 일꾼인 기호 2번 김부겸에 기회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당대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야하기에 이번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로 당의 운명에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선장을 바꾸면 안 된다”라며 “태풍이 몰려오는데 선장이 ‘나 여기까지만 할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날도 이낙연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당대표 후보들의 연설 후 한병도·양향자·이원욱·노용래·김종민·소병훈·염태영·신동근

(발언순) 등 최고위원 후보 8인도 연설을 진행했다.

제주와 강원 지역 순회연설을 마친 민주당은 내달 1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대구·경북(2일), 광주·전남(8일), 전북(9일), 대전·충남·세종(14일), 충북(16일), 경기(21일), 서울·인천(22일) 순으로 합동연설회를 열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박지원 “北 연락사무소 폭파 유감...국가보안법 유지해야”

“흡수통일 아닌, 점진적 방식의 통일방안 지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최근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나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형법만큼 북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에 대한 위헌 제청 2건과 헌법소원 8건 등 총 10건이 청구돼 있

어 향후 현재 결정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남북이 공존하고 공영하면서 단계적, 점진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방안”이라며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북이 경제 사회적 공동체를 이뤄 궁극적으로 평화적 합의에 따라 통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의 합의와 조율을 우선시하는 답변을 내놨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인사청문회 준비가 되어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견해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협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한미연합훈련 연기 및 축소에 대해서는

“실시가 원칙이나, 북한과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에 합의 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단독이 아닌 양국의 조율 하에 결정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시스

野, 이해찬 ‘천박한 서울’ 발언 연일 맹폭...정의당도 “부적절”

미래통합당은 26일 서울을 가리켜 ‘천박한 도시’라고 언급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을 문제삼으며 맹폭을 이어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향해 욕 두문자를 내뱉고 ‘천박한 서울’이라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 표님도, 이른바 검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님들도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아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이 치솟는 것도, 치솟는 부동산 앞에서 국민들 모두를 죄인시하면서 중구난방 화풍이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다 송구스러운으로 일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논

평을 통해 ‘안타까움의 표현’이라서 민주당 해명을 인용하며 “실사 이해찬 대표의 속내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번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며 “당 시에도 부산의 경부선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발표라는 형태를 띠었지 만 결국 남은 것은 ‘초라한 부산’ 논란뿐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 강연 도중 한강변을 거론하며 “우리는 한강 변에 단가 얼마라고,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안전하고, 품위 있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도시 잘 만들어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